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9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상 28:3~31:13,
사무엘하 1:1~9:13)

사울 왕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여전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항상 불안해했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블레셋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하루하루 블레셋의 횡포가 심해졌지만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죠.

**“예전 같으면 다윗을 시켜서 저들을 몰아내라고 했을 텐데
이젠 내 주변에 용감한 자들이 다 떠나버렸구나.
하는 수 없지 내가 직접 나가 싸우는 수밖에....”**

**하지만 사울 왕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봤지만 이미 사울 왕을 떠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급기야 사울 왕은 몰래 변장을 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무당이 전해준 말은
사울 왕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갔어요.
요나단 왕자를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들도 죽고 말았죠.

사울 왕도 적군의 화살을 맞아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여기서 목숨을 연명한다면 고통만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러고는 사울 왕이 옆에 있던
부하에게 말했어요.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전에
어서 죽여달란 말이다.”

“와,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하는 끝내 칼을 뽑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칼을 뽑아
자기의 몸을 찔렀죠.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삶을 끝마쳤어요.

한편, 다윗은 그때 ‘시글락’이란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는 시글락에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쓰고 있었죠.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자네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흑흑..”**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고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의 우정을 약속한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다윗과 부하들은 두 사람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슬퍼했어요.

이제 다윗은,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이젠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처음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잠시일 뿐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
사울 왕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졌으니가요.

그렇게 몇 년 후, 다윗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다윗 왕은 이스라엘 곳곳을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어요.
공격을 하기 전엔 하나님께 뜻을 여쭙어봤고
블레셋이 도망가면서 남긴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죠.**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셋에게서 되찾아 온 언약궤는 한동안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돼 있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어요.
그날 다윗 왕이 어찌나 기뻐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풀만 걸치고는
신나게 춤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부끄러웠죠.

**“왕이시여, 어찌 왕께서 창피한 것도 모르시고
그러셨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셨는지 아세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하나님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체면을
깎아 먹어도 좋소.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요.”**

그리고 다윗이 서둘러서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죽은 요나단 왕자와의 우정을 지키는 일이었죠.
요나단 왕자에게는 ‘므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므비보셋은 고작 다섯 살의 나이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잃고 말았어요.

이후 유모와 함께 도망쳐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유모가 도망치던 중에 어린 므비보셋을 떨어뜨리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죠.
다윗 왕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조용히 살아가던
므비보셋을 찾아냈어요.

**“므비보셋,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는
평생의 친구였단다.
이제부터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갖고 있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목동 다윗이 서른 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